희망 죽이기 프로젝트 '여우사냥'

(시편 102:1~28)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
4.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희망' 죽이기 프로젝트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희망' 죽이기 프로젝트 '여우사냥'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임기 초기부터 특별히 힘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는데 반부패 척결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도피 사범을 추적하여 체포하고 그들이 보유한 장물을 회수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성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가동되어 약 3년 간 90여 국가에서 무려 3,587명을 잡아들였고 1조 5,747억 원을 환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현지 중국인들의 협조로 이와 같은 큰 성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우사냥 운동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오후 4시에 필리핀 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화제가 된 것은 사상 첫 번째 범죄자 집단 송환을 위한 전세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일반 승객은 전혀 없었고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송환되는 피의자 44명과 이들을 호송하는 경찰관 120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44명이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전체 해외도피 사범의 30%에 이르는 숫자라고 합니다. 잡힌 사람들 중에는 적색수배대상자 11명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들도 있었고 마약이나 폭력 절도사범들도 있었습니다. 이중에 어떤 사범은 19년 만에 잡혀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외도피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체포 작전을 발동시키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는데 마음체포 작전을 항상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체포 작전을 실행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체포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머무는 세상일에 대하여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대상은 곧 나만의 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에게 끊임없이 일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체포 작전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터짐으로서 세상에 마음이 안착할 수 없게 하십니다. 안정적이었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부단히 흔드십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계획은 좌절됩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흔드는 수많은 변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체포 작전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승복하고 순순히 마음이 체포당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범죄자들이 국내에 머물다가는 잡힐 것 같아서 해외도주를 감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삶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 찾기를 중단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해외도주처럼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미래라는 시점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등진 범죄자들은 그 마음을 미래로 보내는 도주행각을 바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망은 내 인생을 참 행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악성종양과 같습니다. 해외도피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숨어있던 중국의 범죄자들이 시진핑 주석의 확고하고 집요한 의지에 결국은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을 피해 미래로 도피한 자들의 삶에 참 행복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희망의 문제는 마음이 땅에 붙잡혀 있는 영역을 미래라는 땅 표면 위에서 다른 지점으로 확장시켜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확장되어간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대한 반발과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하늘에 대해 갖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

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즉 복음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하늘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곧 희망으로 삼는 미래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여우를 사냥 하듯이 희망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세상에 대한 죽음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 죽는 것을 넘어섭니다. 더 나아진 상황이 오리라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죽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희망을 죽이는 것을 중국이 해외도주자들을 잡아들이는 여우 사냥에 비유한 것입니다. 미래로 도주한 마음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만, 복음이 말하는 참 소망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겨울에 여우들이 번성하여 가축들이 피해를 입자 대대적인 여우 퇴치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귀족들의 스포츠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귀족들이 총을 들고 여우를 사냥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생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사냥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냥할 수 없다면 지금의 행복은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옳으심 안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희망은 사냥해야 할 여우라는 것입니다.

본 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나라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모든 보물이 약탈당했고,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암울한 역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족적인 수난을 개인의 고통으로 여길 만큼 민족애가 투철하고 선민의식으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자가 고국으로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는데 그 간절함이 지나친 나머지 신체가 훼손될 정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몸에 고열이 나고 삶의 모든 에너지가 불타버릴 정도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몸이 바싹 말라 죽을 지

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실을 생지옥으로 살아가게 하는 희망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면 희망이 숨통을 트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희망은 우리의 인생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이 답답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지금에 대해 죽는 일입니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처럼 미래라는 시점으로 도망하면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외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에 대한 고문이고 괴롭힘입니다.

시인은 포로생활 칠십 년 만에 여호와께서 회복시켜주시리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사는 동안에 선민의식은 퇴색하고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데 예언을 믿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등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칠십 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들은 당사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붙잡혀 와서 70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된다면 이미 다 죽고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귀환할 때에도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고국에서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에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방족속들이 차지하고 살던 고국에 돌아와서 파괴된 성전을 복원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의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궁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선민들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100여 년간을 제외하고는 출애굽부터 포로귀환까지 거의 천 년 동안 속 시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정탐하게 하셨으나 바로 복지로 들여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민들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지를 희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지를 약속하신 이유는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지겠으니 미래에 둔 마음을 거둬들이고 지금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죽이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에 대한 여우사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시내산의 계약과 함께 성막과 번제단을 허

락하셨습니다. 여우사냥을 하듯이 마음이 복지를 희망할 때마다 번제단에서 희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민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해 광야에서 사십 년을 보내고서야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복지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방민족을 따라 풍요와 다산의 미래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고 부흥하는 미래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망치는 첩경은 바로 부흥을 희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온갖 것은 기쁨과 만족으로 삼으면서도 왜 하나님만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은 항상 미래에서 희망을 찾으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민들은 복지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한 예언을 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칠십 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임을 예언하고 이어서 한 예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칠십 년 뒤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희망하며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민들에게 바벨론을 임시로 거할 장소로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고, 더 오래전에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만 신경쓰고 살다보면 칠십 년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이끄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시의 저자는 이 예언의 온전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십 년 뒤에 회복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왜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던 선민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음은 복지에 가있는데 현실은 광

야니 미칠 지경입니다. 저자도 칠십 년 뒤에 회복시켜주시리라는 예언을 믿고 온 마음을 예루살렘 복귀에 쏟아 붓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러니 뼈가 마르고 모든 힘이 소진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살펴도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입을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의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을 더 연장시키며 말려 죽이려는 마귀의 작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이 땅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운명적이고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빚을 지고 있던, 잘못해서 감옥에 있든, 밥을 굶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십 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수돗물도 안 나오는 달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을 국수만 먹고 하루에 13번씩 물지게를 지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봤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여유로워진다고 해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또한 굴속에 들어간 여우를 사냥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언젠가는 주어지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여우사냥으로 죽여야 합니다.
어차피 행복은 지금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이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행복이 내가 서있는 곳으로부터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일 뿐, 빈손으로 먼 미래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이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 내가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차면 그 때부터는 열악하고 참혹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미래 도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잡아내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여우사냥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바벨론에 몸을 두고 시온의 복구를 희망하다가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본 시의 저자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삶을 좀 먹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여우를 날마다 사냥함으로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개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